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2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을 감

성경: 골 2:6-7, 마 7:13-14, 롬 3:7-14

- I. 골로새서 2 장 6 절과 7 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A.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도록 할당된 몫이시다(골 1:12).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고후 3:17, 비교 4:5)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 안에 거하시면서(딤후 4:22)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행한다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물(출 3:8)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활동해야 한다(엡 3:8).
 - C.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 찬송가 1048 장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 하나님 어린양이신 주께 나 지금 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우리는 매일 아침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께 나옴으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상태와 상황에서 저의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 II.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 마 7:13-14.
- A.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생명의 살아 있는 보상으로 이끄는 길 (행 9:2, 19:9, 23, 22:4, 24:22) — 진리의 길(벧후 2:2), 바른 길(15 절), 의의 길(21 절), 평안의 길(눅 1:79, 롬 3:17), 구원의 길(행 16:17), 하나님의 길(마 22:16, 행 18:26), 주님의 길(요 1:23, 행 18:25) 이다.
 - B.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은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체계를 따른다. 그것은 큰 무리를 얻고, 사람의 경력을 유지하며 사람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마 13:31-33, 계 2:13, 20, 17:4-5.
 - C.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은 신성한 규정들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 영적인 요구들을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 — 롬 1:9, 히 11:5-6, 계 1:1-2, 9-10.
 - D.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생명과 사역의 본에 따라 항상 좁고 비좁은 생활과 일을 하는 것이다 — 요 5:19, 30, 4:34, 17:4, 14:10, 24, 7:16, 18.
 - E.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여 활력적이고 건강한 믿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길을 취하게 한다 — 롬 8:4, 갈 5:16, 22-23, 살전 5:16-18.
 - F. 우리는 분량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우리의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제한하기를 배워야 한다 — 고후 10:13-15.

- G. 우리는 제한을 받을수록 더 규제받고 더 건강하게 된다. 활력화 되는 것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했다. 바울은 기적을 의존하지 않았고, 그의 일은 ‘각 사람’의 방식에 훨씬 더 많이 있었다 — 골 1:28-29, 행 20:19-20, 31.
- H.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의해 건축되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반드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생명의 길 곧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 요 10:10 하, 계 22:1-2, 엡 4:16, 2:21-22.
- I.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율조림으로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 요 6:57, 63, 엡 6:17-18, 램 15:16, 시 119:15 와 각주 1, 마 4:4, 24:45, 고전 2:4-5, 13.

III.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빌라델비아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이다 — 계 3:7-13.

- A.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계 3:7-8).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엡 4:11, 5:29, 행 20:28)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벧전 5:2).
- B. 빌라델비아에서의 주님의 회복은 질에 있어서의 회복, 곧 교회의 원래 실질이자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요일 4:8)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참된 터, 곧 교회의 터 위에 서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계 3:7 상, 비교 2:4, 7).
- C.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한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닌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 계 2:17, 3:12, 비교 21:22.
 - 1.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기둥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나의 새 이름’은 기둥이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 기둥인 이기는 이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체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가 된다 — 계 3:12.
 - 2. 새 예루살렘은 새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의미의 그리스도이다. 새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신랑의 증가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 요 3:29-30, 계 21:9-10.
 - 3.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 롬 8:2, 눅 18:27, 비교 창 28:12-19, 요 1:51.
- D.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둔다(비교 고전 3:12).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있다(계 3:8, 막 14:8).
- E.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계 3:8).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은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며 누리도록 이끈다(고후 11:2-3).
- F.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율조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엡 6:17-18, 시 119:11, 15)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다’(계 3:8, 눅 12:2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시 119:48, 느 8:5-6).

- G.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의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고,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롬 10:9-10, 12-13).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빌 2:11), 그들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한다(고후 4:5).
- H. 리 형제님이 애너하임에 있는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서로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IV. 일단 빌라델비아가 타락하면 라오디게아가 된다 — 계 3:7, 14.

- A. 라오디게아는 왜곡된 빌라델비아이다.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다수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견이 된다. 다수가 찬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B.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이다 — 계 3:15-18.
1. 영적 교만은 역사(歷史)에서 온다. 어떤 사람은 한때 풍성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들의 이전 생활은 잃어버렸다.
 2. 주님은 한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실재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그들이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 그들은 가련하고 눈멀었다.
- C.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의 길에 머물고 라오디게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마 5:3, 사 57:15, 갈 6:3.
- D.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의 자신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이전에 그것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라오디게아이다 — 계 3:15-18.
1.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속한 지식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게 하는 살아 있는 믿음은 그다지 많지 않다.
 2. 환호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가 살아 낸 주님 자신이며,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가 자신의 별거벗은 것을 덮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3. 그들의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요일 2:27)임이 분명하며, 이 영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이신 주님 자신이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자신의 눈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러한 안약이 필요하다(비교 욥 42:5-6).
- E. 죽은 공허한 지식과 교리적인 의식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이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실재를 누릴 수 있도록 미지근한 것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야 한다.
- F.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계 3:21-22.
1.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의 미지근한 것과 교만을 이기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내가 이기고 나서 ... 같이’는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